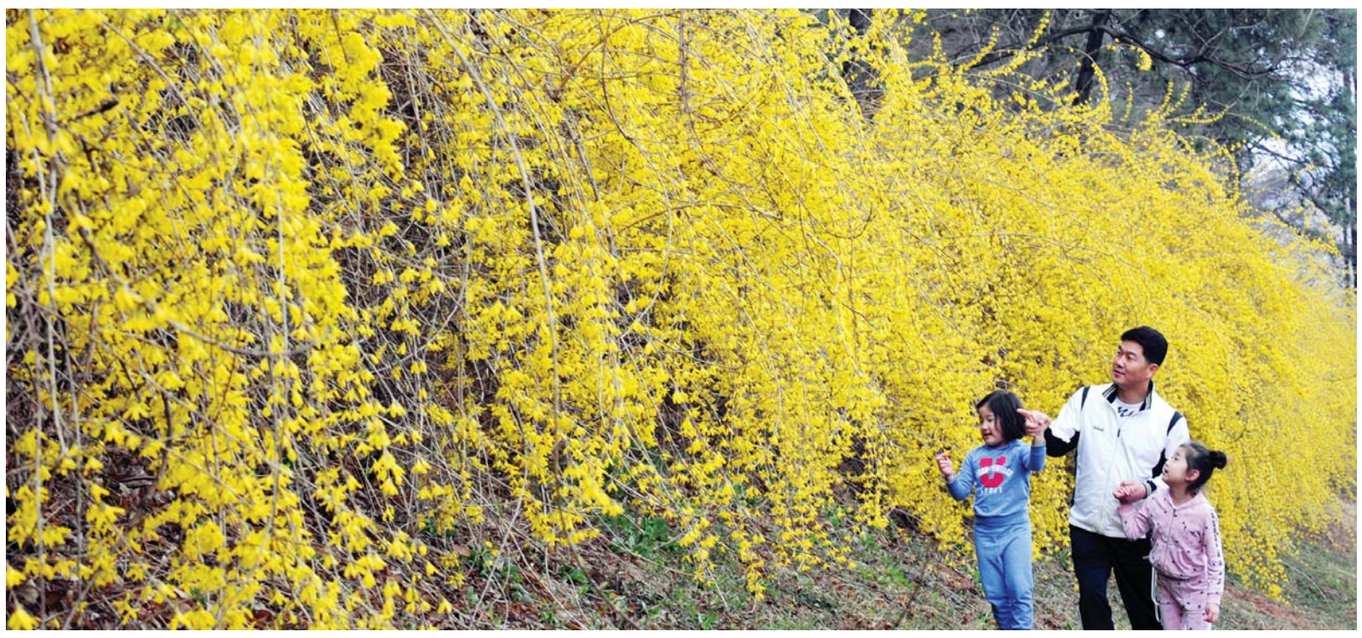


"개나리가 활짝 피었어요" 3일 오후 광주시 서구 치평동 '5·18자유공원'에서 한 시민이 두 딸의 손을 잡고 개나리가 샛노랗게 만개한 산책로를 거닐며 봄의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전남교육청 최대 규모 기능직 50명 전직시험

전남도교육청이 개청 이래 최대 규모의 기능직(사무직렬) 전직 시험을 치른다. 전남도교육청은 오는 22일 기능직 11개 전 직렬을 대상으로 50명을 선발, 사무직렬로 옮기는 기능직 전직 임용시험을 치를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50명에 달하는 대규모 전직시험을 치른 것은 유례가 없는 일로 매년 평균 10명 안팎 정도가 무시험으로 전직해왔다.

대상자는 일선 학교에 근무하는 조무원을 비롯해 운전원, 조리원, 전기, 방호, 항해선박 등 11개 직렬 1700여명이다. 5일부터 7일까지 인터넷 접수하며 28일 필기시험, 29일 면접을 거쳐 합격자를 발표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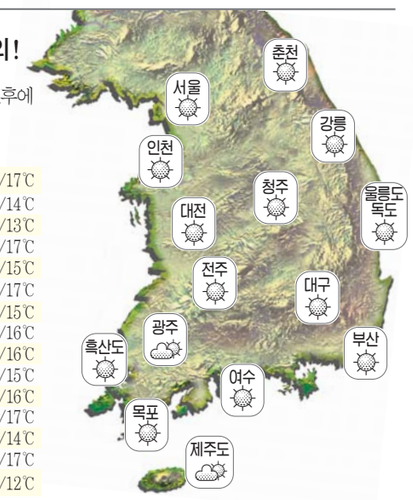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6시 16분 해짐 18시 56분 / 달뜸 06시 09분 달짐 19시 41분

큰 일교차 … 안개주의!

오전에는 구름 많겠고, 오후에는 맑겠다.

광 주	흐린뒤맑음	4/17℃
목 포	구름조금	4/14℃
여 수	구름조금	5/13℃
나 주	흐린뒤맑음	3/17℃
완 도	구름조금	3/15℃
구 례	흐린뒤맑음	1/17℃
해 남	구름조금	1/15℃
장 흥	구름조금	1/16℃
순 천	흐린뒤맑음	3/16℃
영 광	흐린뒤맑음	2/15℃
진 도	구름조금	2/16℃
전 주	구름조금	2/17℃
군 산	구름조금	3/14℃
남 원	구름조금	-1/17℃
흑산도	구름조금	5/12℃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동	0.5~0.5m
먼바다	북동~동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1.5~2.5m
먼바다	북동~동	2.0~4.0m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뇌졸중지수
높음	주의	낮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0.5m
먼바다	북~북동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1.5~2.5m
먼바다	북동~동	2.0~4.0m

	밀물	썰물
목포	02:36 14:41	07:51 19:58
여수	09:26 21:45	03:16 15:25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5(화)	6(수)	7(목)	8(금)	9(토)	10(일)
날 씨						
최저/최고	3/19	5/19	9/14	9/15	6/17	6/19

풍향동 재개발구역 성폭행 등 강력범죄 잇따라

주민들 "대낮에도 나가기 무서워"

방치된 빈 집 50채

최근 광주의 대표적 재개발구역 중 한 곳인 북구 풍향동 2구역 일대에서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3일 북구 풍향동 2구역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께 북구 풍향동 2구역에 사는 이모(여·67)씨의 집에 누군가 돌을 창문에 던져 내부에 사람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한 뒤, 침입하려다가 뒤늦게 이씨가 방문을 열자 달아나는 등 최근 한 달 새 5건의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지난 2월 중순 부녀자 성폭행 사건을 포함해 2월에도 절도 등 3건의 강력사건이 발생했다는 게 주민들의 이야기다. 풍향동 2구역은 광주교대 옆 스포츠센터에서 백림약국 사거리를 아우르는 지역이다.

이 구역의 총 가구수는 350가구지만, 이중 50가구는 빈집이다.

범죄의 대상이 된 이유는 주민 상당수가 65세 이상 고령자들로 범행이 비교적 용이한데다 골목길이 미로처럼 여러 갈래로 나 있어 도주하기 쉽기 때문이다. 또한 빈집이 많아 만일의 경우 숨어들기가 쉬운 점도 범죄를 부추기는 요인이다.

범죄가 빈발하자 이 일대 주민들 사이에서는 '○○가 성폭행을 당했다더라. ○○집이 털렸다'라는 흉흉한 소문까지 나돌고 있다. 주민들은 최근 "범죄 발생 우려가 큰 지역인 만큼 안전을 위해 CC(폐쇄회로)-TV를 설치해 달라"고 풍향동 주민센터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거절당했다.

경찰은 범행이 빈발하자 순찰을 강화했으나 주민들의 요구 사항인 CC-TV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들어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 김모(여·59)씨는 "이곳에서 20년 이상 살았는데, 요즘에는 대낮에 홀로 돌아다니기가 무서울 정도다. 낯선 사람만 봐도 몸이 저절로 움츠러든다"며 "늘 두려움에 시달리며 생활하고 있다. 경찰이나 구청에서 대책을 마련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하소연했다.

광주북부경찰 관계자는 "절도 같은 범죄는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하게 발생하는데, 성폭행 등 강력범죄가 일어났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만큼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4월은 '조심'의 계절

방사능·황사·식중독·꽃가루·산불 … 건강 위협

올 봄은 어느 해보다 '조심스런 계절'이 될 전망이다.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의 방사성 물질 확산과 봄철 불청객 황사, 큰 일교차에 따른 식중독 발생 등 건강관리를 위해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다.

일본 원전 사태의 여파로 요오드 등 방사성 물질이 광주에서도 검출된 가운데, 방사선 공포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달 시작된 중국발 황사도 수시로 몰려오고 있다. 지난해 중국에 '100년만의 가뭄'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극심한 가뭄이 들면서 예년보다 짙고 독한 황사가 밀려올 우려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본격적인 봄철로 접어들면서 일교차가 커지고 있어 식중독 발생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10도 이상 일교차가 벌어지는 경우 짧은 시간에 음식이 부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실제로 지난달 29일 고창의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20여명이 식중독균에 따른 집단 설사 증세를 보였다.

더욱이 유해 꽃가루는 알러지 질병을 유발시키고, 천식, 비염과 같은 호흡기 질환은 물론 결막염, 피부질환의 주원인 물질이다.

이와 함께 봄에는 겨울에 비해 자외선량이 늘어 피부관리에도 신경써야 한다.

이외에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조선대병원 개원 40주년 행사 다채

조선대병원은 개원(4월15일) 40주년을 맞아 음악회와 사진전·바자회 등 지역민과 함께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를 진행한다. 〈관련기사 11면〉

조선대병원 개원 40주년 첫 번째 행사인 국제심포지엄은 지난 2일 병원 2층 하종현홀에서 국내외는 물론 해외 각 분야 권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조선대병원의 역사를 한 눈에 보는 사진전은 오는 14~21일까지 1층 로비에서 열린다. 지난 40년간 조선대병원이 걸어온 길을 '시대별 전시' '내용별 전시' '참여형 전시'로 나누어 100여점의 액자로 전시한다. 이 사진전에서는 호남지역 최고의 병원으로 변해가는 모습은 물론 1970~1980년대 의료 현장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병원을 찾은 환자들이 적은 감동의 편지 전시와 '조대병원 4행시' 짓기 등 다양한 이벤트를 열어 사은품도 증정한다. 또 22일엔 아름다운 가게와 함께 '사랑의 자선바자회'도 연다. 바자회는 의류·가전제품·신발·도서·스포츠용품·예술 작품 등 다양한 물건을 판매해 수익금 전액을 어려운 이웃에게 기증하게 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